

중학생의 북한에 대한 지식과 새터민에 대한 고정관념의 관계에 대한 연구

윤 옥 경*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Stereotypical Attitudes of Middle School Students toward Saeteomins (North Korean Refugees) to Knowledge of North Korea

Yoon, Okkyong*

요약 : 다문화 교육의 실천은 세계 여러 나라마다 다문화 사회 형성의 특징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해 여러 분야에서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터민에 대한 고정관념과 사회적 친밀감의 정도가 북한에 대한 지식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새터민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이주해 온 이주자들처럼 한국사회에 적응해야하는 상황이면서, 언어적, 민족적 동질성을 가진 특수성을 가진다. 같은 민족이면서 다른 문화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새터민과 남한 사람사이에는 문화적 이질감이 존재하고 있는데 새터민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은 다문화적 감수성을 함양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새터민의 탈북양상이 최근 가족단위의 이주가 증가하면서, 학령기 아동의 한국사회 적응은 관련 당사자 모두의 과제인 가운데, 본 연구는 학교현장에서 중학생들이 새터민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주목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북한에 대한 지식을 범주화하여 교과지식, 북한상식, 시사이슈로 나누었으며 각각의 설명력 분석 결과, 북한에 대한 지식은 새터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교육 내용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 결과는 지리교육 내용을 구성에 시사점을 가지며, 다문화교육 실천에 교과의 내용지식의 활용 가능성을 밝혔다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주요어 : 다문화교육, 새터민, 고정관념, 사회적 친밀감, 북한에 대한 지식

Abstract : Multiculturalism in education are different from each countries, It is needed to practice multicultural education in many fields facing changes to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This study demonstrates on the relationship of social friendliness and stereotypical attitudes toward Saeteomins (North Korean refugees) to the knowledge of North Korea. Saeteomins are special in the respect of linguistic and ethnic homogeneity of Korea. They have to adapt themselves to new circumstances like other immigrants from abroad. At the same time they have cultural senses of difference to live in a divided country in spite of ethnic homogeneity. It is important to get openminded attitudes to be receptive to cultural diversity in the respect of getting multicultural sensitivity.

On account of a growing migration of Saeteomins family, Saeteomin students have difficulties in adapting to Korean society. This study focuses on the point of middle school (general) students' view to Saeteomin students, who have experiences to meet each other. There are three categories of contents knowledge, common sense of North Korea and social issues related to North Korea in this paper. All of them are significant to social friendliness and stereotypical attitudes toward Saeteomins to the knowledge of North Korea. That is important point to contents construction in curriculum about North Korea. This study is meaningful to find the potential to link contents knowledge of subject to multicultural education practice in the process of curriculum change 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knowledge of North Korea in 2007.

Key Words : multiculturalism in education, Saeteomins (North Korean refugees), social friendliness, stereotypical attitudes, knowledge of North Korea

1. 서론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함께 살아가는 다민족, 다인종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국가의 특

징을 자랑해왔다. 그러나 최근,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제적 이주가 증가하고 그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우리 사회는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등으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에 주목하고 있

* 대구가톨릭대학교 지리교육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okyoong@cu.ac.kr)

다. 이러한 변화로 단일민족 신화가 흔들리고 민족 정체성의 훼손을 가져올 것으로 염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또 다문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제안되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이라는 이름하에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이해 교육 등의 한국생활에의 적응을 위한 교육과 지원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강희원, 2006; 박찬영, 2008; 윤희원, 2006).

새터민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이주해온 이주자들처럼 한국사회에 적응해야하는 상황이면서, 언어적, 민족적 동질성을 가진 특수성을 가진다. 또 이들이 탈출해 온 북한사회는 세계 여러 다른 나라와 정치적으로 다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민족이면서 다른 문화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새터민과 남한 사람사이에는 문화적 이질감이 존재하고 있는데 새터민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은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가족의 자녀와 같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다문화적 감수성을 함양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탈북자의 수가 증가하고 단독 탈출보다는 가족단위의 탈북이 증가하면서 다문화주적인 관심은 이주 1세대(성인)에 대한 관심에서 이주 2세대인 아동 및 청소년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 이주자 개인적인 문제뿐 아니라, 가정단위의 문제 해결을 고려한 정책 대안 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학령기에 속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서의 생활 적응은 개인적 차원과 정책적 차원에서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터민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새터민 학생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즉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인 도움과 더불어 이들을 둘러싼 다수자들의 고정관념과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새터민에 대한 관심은 오늘날 현실로 이어지는 문제이며 새터민 자신의 문제이면서 우리 사회 전체의 과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학생들의 새터민 학생들에 대한 고정관념과 사회적 친밀감에 대해 북한에 대한 지식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고자 했다.

새터민 학생에 대한 다문화적 시각을 견지하는데 새터민들이 떠나 온 북한에 대한 지식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북한에 대한 지식은 여러 경로를 통해 획득되는데 특히 교육과정의 사회과 지리영역의 관련 단원 내용은 북한(북부지방)에 대한 지리적 사실과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내용이 북한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나아가 새터민에 대한 이해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연구문제 1.

인구학적 특성(성별, 학년)에 따라 북한에 대한 지식, 새터민에 대한 고정관념,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 친밀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중학생의 북한에 대한 지식(교과지식, 북한상식, 시사이슈)이 새터민에 대한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중학생의 북한에 대한 지식(교과지식, 북한상식, 시사이슈)이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 친밀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다문화 교육의 방향과 지리교육

1) 다문화 교육 현실과 사회과(社會科) 지리 교육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들은 소수자를 대상으로 적응하는 교육에 주안점을 두어왔다. 이는 소수자들이 이 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가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초점이 있지만 그 뒤에는 동화주의적 관점이 깔려 있다. 즉 한국의 상황과 문화를 주류문화로 보고 소수자들의 문화 특성을 주류에 합류하여야 할 요소로 보는 것이다.

다문화교육의 관점과 대상자의 개념이 변함에 따라 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즉, 소수자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정체성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에의 대처방식

표 1. 우리나라의 다문화 교육 유형과 교육 대상의 변화

유형/시간	다문화교육의 유형	교육 대상	관심
단기	소수자 적응교육	소수자	동화주의자
	소수자 정체성 교육		다문화주의자
	소수자 공동체 교육		
중기	다수자 대상의 소수자 이해교육	다수자	다문화주의자
장기	모두를 위한 교육	모두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과의 연대		

주: 양영자(2008, 121)의 내용을 일부 수정함

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과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다. 다문화 교육은 기존 다수 집단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균형적으로 실시하는데 주안점을 두며 따라서 다문화 교육 대상을 소수자로 한정하지 않는다(모정환, 2009, 94).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 적응을 돕는 것 뿐 아니라 다문화 가정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다수자 자녀들의 시민적 자질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해 다수자가 가지는 편견과 고정관념 등을 해소하는 것이 소수자 뿐 아니라 다수자의 의사결정 측면에서도 중요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수자 대상의 소수자 이해 교육에서 주의할 점은 소수자를 객체나 대상으로 보는 시각, 소수자 집단 구분 등 바로 이것이 편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차운경, 2008, 9).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문화교육은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에서 그들의 정체성 확보와 상호이해 교육 나아가 다수자의 소수자 이해교육으로 변화되고 있다(최충욱, 2009, 123).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역사, 지리, 사회 등을 가르치는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 실천에 관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에서 교사들은 사회과 수업에서 실천해야 할 주제로 학생들의 소수자에 대한 편견, 또는 일상의 다양한 편견제거, 소수자에게 자신감 불어넣기 등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김선미·김영순, 2008, 85-86). 이러한 경향의 연장선상에서 사회과 지리교육을 통한 다문화교육 방법으로 교과 내용 지식을 다음과 같이 활용하고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설규주, 2009, 202).

- 세계 여러 지역의 문화를 학습함에 있어서 단순한 호기심 차원을 넘어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세계지도와 함께 여러 나라를 학습하면서 해당 국가들의 자연적 인문적 환경의 특성을 이해하고 관심도를 높인다.

다문화 교육의 실천은 세계 여러 나라마다 다문화 사회 형성의 특징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나라마다 상이한 이민자 정책 및 다문화 정책을 수립하고 ‘다문화교육’을 다르게 개념화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즉 각 나라의 다문화적 문제를 상황에 맞게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반영인 셈이다(오경석 등, 2007; 최충욱 등, 2009; 안경식 등, 2008).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불균형에 의한 농촌 총각의 결혼 문제와 3D업종을 기피하는 사회의식 및 저임금 노동에 대한 수요 등으로 결혼이주여성 및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박선희, 2008).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이해되어 외국인 근로자 자녀나 국제결혼자 자녀를 주요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또 다문화 교육과 기존의 국제이해교육과의 관계에 있어 어떤 것이 보다 상위의 포괄적인 개념인지, 둘 사이의 공통점과 차별성은 무엇인지 개념적 혼란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제이해교육의 개념은 시대적 발전에 따라 발전되어 왔는데, 즉 세계 여러 나라가 겪는 문제나 이슈에 대한 학습과 경제, 환경, 문화, 정치, 기술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세계체제에 대한 학습, 문화 간 이해 증진을 위한 학습으로서 다른 나라 문화를 인정하고 타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다른 나라 사람들의

육구와 필요에 대해 인정하는 세계적 시각에 대한 교육이다. 반면 다문화교육은 인종적, 계층적, 민족적으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육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다양한 집단간의 차이점이나 공통점에 대한 이해보다 평등, 다양성 내의 통합, 정의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적 교육의 실천에 목표를 둔다. 즉 다문화 교육은 인종, 성, 민족, 사회계층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자민족 중심적인 사고와 편견을 극복하고 불평등의 요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다른 집단의 배경을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이다(김현덕, 2008).

실제 미국 교육현장에서는 교육내용에 있어 다문화 교육을 추구하는 교사들이 국내 현장의 사례를 직접 다루기 보다는 외국의 사례를 다룸으로서 국내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다루는데 따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었다. 이는 다른 나라의 문화이해를 통한 다문화교육의 방법이며, 또 세계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지구상의 환경, 인권, 자원부족 등 세계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다문화적인 감수성을 기르는 등 다문화교육의 관심을 국내에 한정하던 경향이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¹⁾

특히 장기적으로 사회과를 중심으로 한 국가 내에서의 다문화 이해 교육은 국제이해교육과 결합하여 연대하는 되는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 사실 세계화 시대의 도래로 인구이동(이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적 경험은 먼 지역에 가서 경험하는 것이 아닌, 지금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 교육은 연계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하겠다. 사회과의 지리영역에서 '세계지리' 관련 내용은 세계 여러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분야로서 세계화된 시대의 다문화 교육의 소재로 널리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교육의 지향점과 다문화교육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교

과의 교육과정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 내용을 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로서 북한에 대한 지식과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 친밀감 및 고정관념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새터민의 증가와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의 이주가 발생하고 있는데 시대별로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동한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는 '귀순용사', '탈북자', '북한이탈주민' 등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었다. 2005년 통일부의 공모로 만들어진 새터민이라는 용어는 '새로운 곳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의 의미로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정착한 주민을 대상으로 사용된다(조용관·김윤영, 2009, 16)²⁾. '새터민'에 대해서는 민족적(신체적), 언어적 동질성으로 인해 다른 인종 집단과는 다른 정서가 작용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분단과 북한의 고립 등으로 인한 문화적 차이와 정치적으로 미묘한 감정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로 인해 새터민에 대해 형성되는 고정관념과 편견은 민족적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종집단과 같이 남한사회에서 이주민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하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 우리사회에서는 새터민에 대해 남한 내 소외계층(소수자)으로 보고 이를 보호,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과 난민으로 간주하여 국제적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입장, 북한 주민의 샘플로서 통일 이후 이들을 매개로 사회통합을 준비하자는 시각, 실향민으로 보는 시각 등 다양하다. 한편 북한과의 관계에서 탈북자로 인해 남북화해에 방해가 된다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오인혜, 2007, 11-16).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남한사람과 다른 북한 출신이라는 점을 구별하여 범주화 했다는 사실로 그

표 2. 연도별 새터민 수의 증가

(단위: 명)

연도 구분	~1989	~1993	~1998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3	합계
남	562	32	235	563	506	469	626	423	509	570	612	193	5300
여	45	2	71	480	632	812	1,268	960	1,509	1,974	2,197	586	10,536
합계	607	34	306	1,04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779	15,836

자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조용관·김윤영(2009)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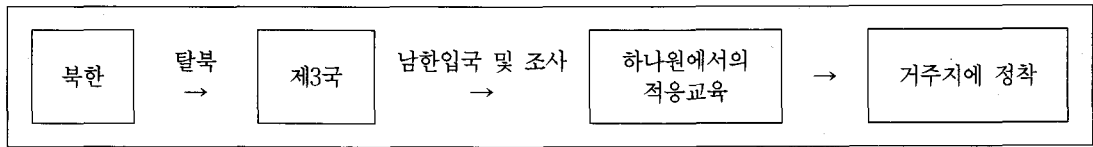


그림 1. 새터민의 남한 정착과정

자체가 집단간 차별을 일으키는 내집단 선호의 출발점이다(한덕웅, 1995). 소수집단에 대한 범주화는 집단간의 상징적 경계선을 생성시키고, 집단에 소속되는 사람들을 모두 비슷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우를 범하게 한다(차윤경, 2008).

새터민의 이주과정은 출발과 도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다른 국제 이주민들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데, 탈북과 제3국 경유, 남한 입국, 적응의 과정을 겪기 까지 신체적, 정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들이 한국에 오면 단계별로 적응기관을 거쳐 사회와 학교로 편입된다. 새터민이 거주하는 공간은 특정 지역의 주택단지인 경우가 많아 특별한 분포를 보이게 되는데, 주로 새터민들은 일자리 구하기에 유리한 수도권일대에 많이 거주한다.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은 보통 중국이나 제 3국을 경유하여 최종 이주의 목적지로 남한을 선택한다. 이는 한민족이라는 민족적 동질성과 낮은 언어장벽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심원, 2006). 그러나 탈북자들이 꿈꾸던 남한의 생활과 달리 새터민의 현실은 보통의 다른 이주민들의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본국에서 보다 낮은 사회적 지위에 처하는 것(downward mobility)을 감수해야 하며(정진현, 2007), 차별이나 편견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꺼리게 된다(박하나, 2007). 새터민들은 남한 주민들이 자신들에 대해 호의적으로 대하거나 동정적이라고 보기 보다는 '냉담하다.', '적대적이고 멸시적이다.'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괴롭게 여기고 있다(조용관·김윤영, 2009). 이러한 남한 사람들의 새터민에 대한 시선은 새터민의 정체성 형성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새터민 청소년들은 새터민이라는 위치와 더불어 특히 정체성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의 특성을 나타내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한다. 심원(2006)은 새터민 청소년들과의 심층면담에서 그들이 북

한을 지칭할 때 '북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거기'나 '그쪽'이라는 대명사를 주로 이용하는 것을 발견하였다³⁾. 새터민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들이 장차 남한사회에 기반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공간적 측면과 동시에 청소년기의 정체성 형성에 있다는 시간적 측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된다.

새터민 청소년들은 탈북 후 남한에 도착하기 까지 제3국 등에서 체류기간 등으로 또래 학생보다 나이가 많고 학교의 여러 가지 규칙에 적응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대안학교나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거나 아예 학업을 포기하고 직장에 다니는 경우도 있다.(심원, 2006, 39) 그러나 남한사회에서 학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졸업자격을 얻기 위해 어려움을 무릅쓰고 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런데 새터민들이 주로 정착하는 곳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착금의 규모에 따른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에 집중된다. 이 지역이 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중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새터민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과 한 교실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

새터민은 국제결혼자와 외국인 근로자에 비해 그동안 다문화교육의 대상자로서 관심이 많지 않았지만(양영자, 2007, 199) 새터민의 꾸준한 증가와 학령기의 새터민 아동, 청소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 다니는 새터민 학생들은 일반 중학교에 함께 다니지만, 학교 생활 적응 및 학업성취상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상담 및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들 새터민 학생에 대해 일반 학생들이 가지는 고정관념과 편견은 새터민 학생의 적응과 통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 대상인 새터민과 관련된 다문화 교육은 지금까지 새터민을 대상으로 남한사회의 적응에 초점을 둔 교육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일종의 동화주의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 처방되어 온 다문화교육의 초기 유형

이다. 그러나 새터민의 정체성 교섭에 대한 관심(심원, 2006), 북한에 대한 다수 남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상세히 분석하는 연구(전우영·조은경, 2000) 등이 증가하고, 전반적으로 다문화 교육의 대상이 소수자에서 다수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다수자의 소수자 이해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문화주의적 입장에서 더 나아가 '모두를 위한 교육', '다문화 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의 연대'라는 맥락에서 장기적으로 다문화교육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 초점을 두었다. 북한에 대한 지식이 새터민에 대한 고정관념과 관련성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했으며 사회과 지리수업에서 학습 내용과 다문화교육의 실천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새터민 학생 7명이 재학중(2007년 11월 현재)인 서울의 한 중학교 1, 2, 3학년 남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연구 대상 학생들은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 재학중에 새터민 학생들과 함께 학교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다. 연구대상 중 남학생은 168(50%)명, 여학생은 168명(50%)이며, 1학년 97명(29%), 2학년 107명(32%), 3학년 132명(39%)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대상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응답하게 한 후 수거하였다.

표 3. 연구 대상 학생 수 (단위: 명)

성별 \ 학년	학년			계
	1	2	3	
남	51	52	65	168 (50%)
여	46	55	67	168 (50%)
계	97 (29%)	107 (32%)	132 (39%)	336

2) 연구 척도

(1) 북한에 대한 지식

북한에 대한 지식을 알아보기 위해 전우영·조

은경(2000)의 북한에 대한 지식척도와 중학교 지리 교육과정을 기초로 하여 현장교사 2인과 지리학과 교수 2인의 검토 하에 척도를 구성하였다. 북한에 대한 지식척도는 교과 지식(8문항), 북한 상식(8문항), 시사이슈(10 문항)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알지 못한다'에서 '매우 잘 안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졌다.

① 교과 지식

교과 지식에 대한 질문 내용은 교과 시간에 학습하는 '북부지방의 생활 단원'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즉 '북한(북부지방)의 위치, 지형, 기후, 도시, 공업, 농업, 자원, 행정구역'으로 계통지리적 체계의 각 항목이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교과 지식의 응답점수는 8점부터 40점 사이에 분포하며 평균(표준편차)은 20.48(8.00)로 나타났다. 척도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8로 나타났다.

② 북한 상식

북한 상식의 내용은 생활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로서 '북한의 유명한 음식, 북한의 특산물, 북한의 관광지, 북한의 문화재, 북한의 정치제도, 북한의 사회제도(결혼, 교육 등), 북한의 대중문화(영화, 공연, 스포츠 등), 북한의 어휘(예: 껍밥 → 도시락)' 등에 대한 것이다.

북한 상식의 응답점수는 8점부터 40점 사이에 분포하며 평균(표준편차)은 21.14(6.93)으로 나타났다. 척도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5로 나타났다.

③ 시사 이슈

시사 이슈의 내용은 언론매체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되는 북한 관련 뉴스로, 북한의 최근 변화를 반영하는 사안들이다. 즉 '북한의 식량문제, 북핵문제와 6자회담, 남북 정상회담. 경수로 건설사업,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남북 경제 협력, 북한의 개방정책, 국제협력과 세계화, 북한의 경제사정' 등이다.

시사 이슈의 응답점수는 10점부터 50점 사이에 분포하며 평균(표준편차)은 27.20(8.85)로 나타났다. 척도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9로 나타났다.

(2) 새터민에 대한 고정관념

새터민에 대한 고정관념은 임성택(2003)의 북한민의 고정관념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새터민에 대한 고정관념 척도는 다음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졌다.

- | | |
|---------------|---------------|
| 1. 새터민은 친절하다. | 2. 믿을 수 있다. |
| 3. 호감이 간다. | 4. 친근하다. |
| 5. 겸손하다. | 6. 유능하다. |
| 7. 영리하다. | 8. 도덕적이다. |
| 9. 부지런하다. | 10. 합리적이다. |
| | (사리분별을 잘 한다.) |
| 11. 이상적이다. | 12. 평화적이다. |
| 13. 온순하다. | |

새터민에 대한 고정관념의 응답점수는 13점부터 65점 사이에 분포하며 평균(표준편차)은 36.22(8.79)로 나타났다. 척도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4로 나타났다.

(3)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 친밀감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 친밀감을 측정하기 위해 김혜숙·오승섭(1999)의 연구에서 사용한 북한사람

- | |
|---|
| 1. 나는 나중에 새터민과 결혼할 수 있다. |
| 2. 나는 새터민이 혼인관계로 친인척이 되는 것을 환영하겠다. |
| 3. 이웃집 아이나 동생들이 새터민과 같이 놀게 하겠다. |
| 4. 나는 커서 새터민을 데이트상대로 삼지 않겠다. |
| 5. 나는 어른이 되면, 새터민에게 집(방)을 세(전세 등) 주지 않겠다. |

에 대한 고정관념 척도를 사용하였다.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 친밀감 척도는 다음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7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졌다.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 친밀감의 응답점수는 5점부터 35점 사이에 분포하며 평균(표준편차)은 18.80(5.99)로 나타났다. 척도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1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2007년 11월 수업시간에 사전 양해를 구하고 조사 대상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응답하도록 하였다. 질문지 응답은 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질문지는 응답 장소에서 수거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검증, 일원변량분석, 단순회귀분석을 이용해 유의수준 .05 미만에서 검증하였다.

4. 연구 결과

1) 인구학적 특성에 의한 집단간 차이 비교

(1) 성별에 따른 차이

남녀 학생의 북한에 대한 지식을 비교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교과지식($t=-.14$), 북한상식($t=-1.39$), 시사이슈($t=.63$) 각각의 영역에서 학년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학생의 새터민에 대한 고정관념과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 친밀도를 비교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새터민에 대한 고정관념($t=-.63$, $p<.001$)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 친밀($t=-.18$)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남녀 중학생의 북한에 대한 지식 차이

변인	변인구분	교과지식	북한상식	시사이슈
		M(SD)	M(SD)	M(SD)
성별	남자 중학생(159)	20.36(8.66)	20.54(7.27)	27.45(9.67)
	여자 중학생(161)	20.49(7.22)	21.61(6.41)	26.83(8.01)
	t값	-.14	-1.39	.63

표 5. 남녀 중학생의 새터민에 대한 고정관념 및 사회적 친밀도 차이

변인	변인구분	새터민에 대한 고정관념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 친밀도	
		M(SD)	Sch.	M(SD)	Sch.
성별	남자 중학생(159)	35.89(10.31)		18.16(6.04)	
	여자 중학생(161)	36.51(6.96)		19.33(5.81)	
	t값	-.63***		-.18	

*** p<.001

(2) 학년에 따른 차이

북한에 대한 지식의 학년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과지식(F=2.50)과 북한상식(F=.47)은 학년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사이슈(F=3.27, p<.01)는 학년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쉐페검증을 실시한 결과 시사이슈 영역에서 중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3학년이 2학년보다 시사이슈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다.

학년에 따른 새터민에 대한 고정관념 및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 친밀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새터민에 대한 고정

관념(F=5.23, p<.01)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 친밀도는(F=2.30)는 학년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쉐페검증을 실시한 결과 새터민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1학년과 2학년, 2학년과 3학년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2학년이 1학년과 3학년보다 더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 북한에 대한 지식이 새터민에 대한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북한에 대한 지식이 새터민에 대한 고정관념에

표 6. 북한에 대한 지식의 학년별 차이

변인	변인구분	사시이슈			
		교과지식	북한상식	M(SD)	Sch.
학년	1학년(97)	21.98(9.11)	21.04(7.27)	27.11(8.95)	a
	2학년(107)	19.77(7.64)	20.61(6.92)	25.51(9.04)	a
	3학년(132)	19.86(7.15)	21.50(6.53)	28.50(8.46)	b
	F값	F _(2,333) =2.50	F _(2,333) =.47	F _(2,333) =3.27**	

주) Sch.: 쉐페검증결과

** p<.01

ab: 같은 문자끼리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

표 7. 새터민에 대한 고정관념 및 사회적 친밀도의 학년별 차이

변인	변인구분	새터민에 대한 고정관념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 친밀도	
		M(SD)	Sch.	M(SD)	Sch.
학년	1학년(97)	35.08(8.88)	a	17.72(6.00)	
	2학년(107)	38.49(8.19)	b	19.44(5.43)	
	3학년(132)	35.23(8.93)	a	19.05(6.38)	
	F값	F _(2,333) =5.23**		F _(2,333) =2.30	

주) Sch.: 쉐페검증결과

** p<.01

ab: 같은 문자끼리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

표 8. 북한에 대한 지식이 새터민에 대한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종속변수	새터민에 대한 고정관념			R ²	F값
		B	Std. Error	β		
상수		31.06	1.30		.05	16.98***
교과지식		.24	.06	.22		
상수		29.77	1.55		.06	18.92***
북한상식		.30	.07	.24		
상수		29.88	1.54		.05	18.06***
시사이슈		.23	.05	.23		

*** p<.001

표 9. 북한에 대한 지식이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종속변수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 친밀도			R ²	F값
		B	Std. Error	β		
상수		15.31	.88		.05	17.43***
교과지식		.17	.04	.23		
상수		13.31	1.03		.09	30.70***
북한상식		.26	.05	.30		
상수		12.67	1.03		.11	39.02***
시사이슈		.23	.04	.33		

*** p<.001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새터민에 대한 고정관념은 북한에 대한 지식 즉 교과지식, 북한상식, 시사이슈에 의해 각각 유의하게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지식의 설명력은 5%(R²=.05), 북한상식의 설명력은 6%(R²=.06), 시사이슈의 설명력은 5%(R²=.05)로 각각 새터민에 대한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북한에 대한 지식이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북한에 대한 지식이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 친밀감은 북한에 대한 지식 즉 교과지식, 북한 상식, 시사이슈에 의해 각각 유의하게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지식의 설명력은 5%(R²=.05), 북한상식의 설명력은 9%(R²=.09), 시사이슈의 설명력은 11%(R²=.11)

로 각각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논의

우리 사회는 수천 년 동안 '단일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전통문화를 고수해 왔고 이것이 사회적 통합과 결속을 유지하는 한 요소가 되었었다. 그러나 외국인의 이주 증가로 인해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지만,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이념, 계층, 지역, 세대간 갈등에 비해 민족, 종교 등으로 인한 갈등은 다민족국가에 비해 미약하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사회의 소수자(마이내리티: minority)로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국제 결혼으로 인한 외국인 배우자(특히 농촌의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소수자 중의 하나인 새터민은 세계적으로 독특한 이주의 한 사례로서, 단일민족이라는 혈연적 공통성과 더불어 분단의 현실로 인한 문화의 이질성의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민족적,

언어적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정치 사회적, 문화적 이질성 심화로 인해, 남한사회에서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삶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해 여러 분야에서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새터민에 대한 고정관념과 사회적 친밀감의 정도가 북한에 대한 지식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새터민의 탈북양상이 최근 가족단위의 이주 증가로, 학령기 아동의 한국사회 적응은 관련 당사자 모두의 과제인 가운데, 학교현장에서 새터민을 접한 학생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주목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북한에 대한 지식을 범주화하여 교과지식, 북한상식, 시사이슈로 나누었으며 각각의 설명력 분석 결과는 북한에 대한 지리교육 내용을 구성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2010년에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 새롭게 편성된 교과서가 도입되는데, 본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변화된 교육과정에 기반한 교수-학습 과정에서 북부지방에 대한 계통 지리적 내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주목된다. 2007년 공포된 개정교육과정의 체계는 이전의 제7차 교육과정의 지역적 접근에서 주제 중심의 구성으로 대 전환을 맞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학습은 '북부지방의 생활'단원에서 현실 반영적인 시사 주제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북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학생들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7학년(중학교 1학년) 북부지방의 생활 단원에서 북한에 대한 지리적 내용과 관련 북한 상식, 시사이슈 등을 학습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다.⁴⁾ 이들이 학습해온 북한 관련 지역지리적 내용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직접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제시되지는 않는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 중학교 사회과 지리분야에서 북한에 대한 내용은 9학년(중학교 3학년) 과정의 마지막 단원에서 주제 및 시사 이슈 중심으로 학습하게 될 것이다. 북부지방에 대해 학생들은 정치·경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고, 공업과 자연환경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한다고 하는데(강창숙, 2008) 학생들의 북부지방에 대한 이러한 이해특성을 고려할 때 어떤 내용을 소재로 접근해야 할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본 연구의 척도 중 교과지식에 해당되는 '북한(북부지방)의 위치, 지형, 기후, 도시, 공업, 농업, 자원, 행정구역' 등 교과지식의 내용에 해당되는 계통지리적 내용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기회는 갖지 못한다. 그런데 본 연구 결과 교과지식은 새터민에 대한 고정관념(설명력 5%(R²=.05))과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 친밀감(설명력 5%(R²=.05))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교육의 접근에 있어 해당 이주민 집단의 출발지역에 대한 정보와 이의 이해는 다문화 교육 내용의 주요 구성요소가 될 수 있고 본 연구결과 북한에 대한 지식(교과지식)이 새터민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지역지리적 접근이 사라진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서 각 주제요소에 맞추어 관련 내용을 다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다문화교육은 분단 상황과 다문화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차운경,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북한 관련 내용>

(5) 통일 한국의 미래

우리나라가 세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토 공간의 지리적 통합이 필요함을 깨닫고, 북한의 개방 지역,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지리적 의미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국토 통일에 대비한다. 지리적·정치적 인접 국가에 대한 지리적 이해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설계한다.

- ① 북한의 개방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한다.
- ② 백두산 지역, 비무장지대(DMZ)가 갖는 지리적 의미와 특성을 이해한다.
- ③ 국토 통일과 관련하여 동북아시아의 지리적 위치를 이해한다.
- ④ 세계로 도약하기 위해 통일의 필요함을 깨닫고 통일 후의 바람직한 국토 공간 모습을 그려본다.

출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07.2.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발췌

<제7차 교육과정의 '북부지방의 생활' 단원>

【7학년】 (4) 북부 지방의 생활

북부지방의 자연 및 인문환경의 특색을 파악하고, 국토 통일에 대비하여 분단 이후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서 나타난 주민 생활 및 지역성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본다.

(가) 대륙의 관문

- ① 북부 지방의 위치 특성을 살펴보고, 국토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 ② 지형의 특색을 중·남부 지방과 비교하여 설명한다.
- ③ 기후의 특색을 파악하고, 기후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간의 차이를 살펴본다.
(심화과정) 북부 지방의 자연 환경이 주민 생활에 미친 영향을 의, 식, 주와 관련시켜 조사한다.

(나) 북부 지방의 중심지 관서 지방

- ① 관서 지방이 오랫동안 북부 지방의 중심지가 되었던 역사·정치적 배경을 설명한다.
- ② 공산화 이후 토지 제도와 농업 방식의 변화를 설명하고, 최근 북한이 당면한 식량 부족 문제에 대하여 조사한다.
- ③ 북부 지방 최대의 공업 지역으로 발달한 원인을 설명하고, 주요 공업 도시와 공업을 조사한다.
(심화과정)북한의 주요 농산물 생산량 추이를 살펴보고, 식량 부족의 원인을 알아본다.

(다) 문호를 개방하는 관북 지방

- ① 동력 자원과 임산 자원의 분포 지역을 조사하고, 이들 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대하여 알아본다.
- ② 해안 지대에 중화학 공업이 발달한 배경을 설명하고, 주요 공업 도시와 중심 공업을 조사한다.
- ③ 북한의 개방 정책을 파악하고, 남북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 협력에 대해 조사한다.
(심화과정) 남북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교역품과 교역량의 추이를 조사한다.

출처: 제7차 교육 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발췌

표 10.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북한 관련 학습 내용의 변화

	제7차 교육과정 (1997년 고시)	2007년 개정 교육과정
6학년	대단원명: 함께 살아가는 세계 중단원명: 통일과 민족의 앞날 - 남북분단의 원인과 남북 대결과정 -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 - 통일조국의 미래상 * 북한 어린이들의 생활 (방송, 신문 기사 등의 자료)	대단원명: 아름다운 우리 국토 -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자연·인문 지리적인 특성 이해
7학년	대단원명: 북부지방의 생활 중단원명: 대륙의 관문 중단원명: 북부지방의 중심지 관서지방 중단원명: 문호를 개방하는 관북지방	* 북부지방, 또는 북한을 지역적으로 접근한 내용은 없음
9학년	대단원명: 지구촌 사회와 한국 중단원명: 우리 민족의 발전 과제 - 남북 분단의 배경과 분단 이후의 남북 관계 - 화합과 협력을 위한 노력, 민족 통일 방안 - 국토 통일이 북방 진출, 대외 교역로 확보, 개발 잠재력의 신장 측면에서 가지는 의미 파악 * 북한 주민과 남한의 언어, 의식, 생활 풍습의 이질화.	대단원명: 통일 한국의 미래 - 북한의 개방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사례 중심으로 조사) - 백두산 지역, 비무장지대(DMZ)가 갖는 지리적 의미와 특성 이해 - 국토 통일과 관련하여 동북아시아의 지리적 위치 이해 -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후의 바람직한 국토 공간

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대강화의 원칙에 따라 제7차 교육과정과 달리 대단원명만 명시하고 중단원명을 명시하지 않았음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새터민' 관련 내용>

초등학교 5학년 도덕

(3) 국가·민족·지구공동체와의 관계

(가) 북한 동포 및 새터민의 삶 이해

우리 민족의 통일은 남북한 주민들의 사회적, 정서적 통합에 의해 완성될 수 있음을 알고, 북한 동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 동포와 교류·협력해나가려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북한 동포나 새터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나 편견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북한 동포와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루는 방법과 새터민이 우리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찾아본다.

- ① 북한 동포의 생활상 및 문화적 차이 알기
- ② 북한 동포와의 인간적 교류와 협력 방안
- ③ 새터민이 우리 사회에서 적응하도록 돕는 방법

출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발췌

2008) 같은 민족이면서도 문화적, 정서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북한의 문화를 이해하고 새터민과 진정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설규주, 2009, 202). 한편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5학년 도덕과에는 '새터민'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제안한다. 교육과정에 새터민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는 것은 교육적 관심과 중요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에는 새터민의 우리사회에의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내용을 제안하고 있으며 새터민을 북한 동포를 이해하고 북한 동포와 교류 협력을 위한 태도를 기르기 위한 실천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교육과정 문서에 새터민의 존재와 위상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가치와 태도를 가지는 데 교과 내용 지식이 영향을 미치므로 북한에 대한 지식을 다룰 때 새터민과 관련하여 균형있는 다문화교육의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주

- 1)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경향을 세계 다문화 교육 (Global Multicultural Education)이라고 칭하기도 한다(김현덕, 2008).
- 2) 탈북자들은 자신들을 '자유북한인,' '북한이주민'이라고 부르며, 북한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새터민에 대해 '남조선을 미화하는 이름'이라고 비난했다(조용관·김윤영, 2009).
- 3) 중학교 학생들의 북부지방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 강

창숙(2008)은 중학생들이 북부지방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표상하는 지역 이미지는 '북한'이며, 보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경우 '북부지방'이라는 지명을 더 많이 사용하고, 부정적일수록 '북한'이라는 지명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밝혔다.

- 4) 제7차 교육과정에서 9학년(중학교 3학년)의 마지막 부분에서 통일과 관련지어 남북간의 이질성을 파악하기 위한 소재로 남과 북의 언어 차이 등 북한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위해 수행한 설문조사의 시기는 중학교 1학년의 경우 '북부지방의 생활' 단원을 학습한 이후이고,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경우라도 아직 마지막 단원의 학습 이전의 시기이므로 9학년의 내용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문헌

강창숙, 2008, 중학생들의 '북부지방'에 대한 이해 특성과 지역이미지, 한국지역환경교육학회지, 16(2), 79-96.

강희원, 2006,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요인과 통합 정책,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20(2), 5-34.

금명자, 2004, 탈북 청소년의 문화 적응 과정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95-308.

길은배, 2003,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문제와 정책적 함의, 청소년학연구, 10(4), 163-186.

김선미·김영순, 2008, 다문화교육의 이해, 한국문화사.

김현덕, 2008, 다문화시대의 도래와 국제이해교육의 역할,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중학생의 북한에 대한 지식과 새터민에 대한 고정관념의 관계에 대한 연구

- 여음, *다문화 사회와 국제이해교육*, 동녘, 115-145.
- 김혜숙·오승섭, 1999, 북한사람에 대한 대학생과 일반인의 고정관념, 감정과 태도: 외국인에 대한 태도와 의 비교, *심리과학*, 8(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과학연구소, 1-22.
- 마석훈, 2005, '탈북 청소년'의 특성과 남한 사회의 편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모경환, 2009,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목표*,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편,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양서원, 91-109.
- 박선희, 2008, *지리교육에서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 모색*, 한국지리(7차개정시안)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6(2), 163-177.
- 박윤숙, 2007,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특성과 남한사회 적응과의 관계*, *한국사회학*, 41(1), 124-155.
- 박재의·전현정·이순옥·김무정, 2008,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운영 사례분석을 통한 교육과정 개발 방향 탐색*, *한국초등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77-309.
- 박찬영, 2008, *다문화적 상호이해를 위한 인문교육 방안*,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 박하나, 2007, *사회과 학업성취도에 대한 탈북 청소년의 경험 이해 -초입(初入) 중학생의 평가 경험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설규주, 2009, *초등 다문화 교육의 실제*,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편,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양서원, 191-216.
- 심 원, 2006, *새터민 청소년들의 정체성 교섭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경식·김동광·김향은·김희용·박천웅·이철호·장인실 공저, 2008, *다문화 교육의 현황과 과제*, 학지사
- 양영자, 2007, *한국의 다문화교육 현황과 과제*, 오경석 등 지음,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한올아카데미*, 197-230.
- _____, 2008, *한국 다문화교육의 개념정립과 교육과정 개발방향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엄경남, 2001, *탈북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심리·사회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경석 등, 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올아카데미.
- 오난희, 2003, *북한이탈아동·청소년의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사례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인혜, 2007, *탈북자의 고향의식과 그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옥경, 2004, *북한지역에 대한 초·중등학교 학습자료 개선 방향*,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2(2), 327-341.
- 윤인진, 1999,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정착지원의 새로운 접근*, *한국사회학*, 33, 511-549.
- 윤희원, 2006, *인적자원개발 정책연구 2006-13*, *다문화가정 지원 우수 사례 연구 보고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 이용교, 2006, *새터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8(1), 51-67.
- 이재창·김영만, 2005, *탈북자들의 심리적 특성이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 -탈북자들과 남한주민들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3), 41-66.
- 임성택, 2003, *세계 시민교육 관점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한국 학생들의 고정관념 분석*, *교육학연구*, 41(3), 275-301.
- 장혜정·윤석희, 2007, *탈북 아동의 장소애에 대한 연구*, 2007년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76-82.
- 전우영·조은경, 2000,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과 통일에 대한 거리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7-184.
- 정병호, 2004, *탈북 이주민들의 환상과 부적응*, *비교문화연구*, 10(1), 33-62.
- 정상돈, 2002, *"이데올로기 문제와 통일교육의 다원화"*, *통일교육의 다원화와 제도개선 방안*, 도서출판 오름, 19-71.
- 정진현, 2007, *탈북한·다문화시대, 마이너리티 민족지*, 오경석 등,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올 아카데미, 135-166.
- 조용관·김윤영, 2009, *탈북자와 함께 하는 통일*, 한올아카데미.
- 차운경, 2008, *한국 다문화교육의 전망과 과제*,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연차학술대회 초록집(기조강연)*, 3-20.

최충욱, 2009, 외국 다문화 교육의 동향,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편,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양서원, 111-126.

통일부, 2007, 통일백서.

한덕웅, 1995, 집단행동이론의 비판적 개관(1): 집단내 행동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0(1), 39-84

Biddulph, M. and Butt, G.(eds.), Theory into Practice Series, Place, 'Race' and teaching geography,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Geography teachers(from <http://www.geography.org.uk/>, 2009)

Butt, G. (2002) *Reflective teaching of geography 11-18*, Continuum. London.

Cole, D. J., 1984, Multicultural education and global education: a possible merger, *Theory into Practice*, 23(2), 151-154.

Dwyer, O. J. (ed.), 1999, Symposium: Teaching about race and racism in geography: classroom and curriculum perspectives, National Council for Geographic Education, *Journal of Geography*, 98(4), 176-190.

Huckle, J., 1997, Towards a critical school

geography, in Tilbury, D. and Williams, M. (eds.), *Teaching and Learning Geography*, Routledge, 241-252.

Nast, H., 1999, 'Sex', 'Race' and multiculturalism: critical consumption and the politics of course evaluations. Authors,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23(1), 102-115.

Tilbury, D., 2002, Active citizenship: empowering people as cultural agents through geography, in Gerber, R. and Williams, M. (ed.), *Geography, Culture, and Educati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Boston, 105-113.

謝辭

본 연구내용 중 일부는 2009년 한국지역지리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으며,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자료수집 및 분석, 해석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경화 교수님과 설문조사에 협조해주신 학생들 및 학교 당국에 감사드립니다.

(접수: 2009.10.16, 수정: 2009.11.7, 채택: 2009.12.8)